

L형 그간 소식이 뜸하여 미안하군요. 나에 관하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어려웠던 시절, 허기진 몸으로 보릿고개를 넘기던 가난에 찌든 시절 잘 살아 보려고 남이 하지 않는 기계공학을 선택하여 백발이 성성하도록 오랜 기간 기계공학에 관하여 연구와 후학들을 가르쳐 오면서 현재까지 큰 과오 없이 지내온 것은 무한한 영광이며 음양으로 나와 인연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뿐이네요. 그 중 두말 할 것 없이 L형의 배려와 관심이 크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형. 그 동안 과학기술자로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반추해보고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형에게 넋두리겸 푸념 한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군요. L형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수학은 인간을 보다 섬세하게 하고, 자연과학은 심원(深遠)하게 하며, 공학은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요. 그 때 형은 공학이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지라도 정녕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 즉 인간답게 사는 것을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이 생각나는군요.

L형. 과학기술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람되며 또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푸념을 하였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상 남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사물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고 개발에 힘쓰며 최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더 바라다면 선진국에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요. 아마 그것은 지금부터 약 20여 정상 전에 푸념한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L형.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의 사고는 그 당시 사고와는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네요. 형도 잘 알겠지만 정도(精度)가 그 당시는 마이크로(micro)에서 현재는 나노(nano)를 벗어나 피코(pico)까지 발전해 가는 추세이며, 요즘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인간의 복제와 혈관 속에 초극미세의 해부용 로봇의 개발 등등으로 인간의 무한 생명 연장가능성이라든지 과거에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것이 차츰 해결된다고 알고 있지요. 무한한 발전과 경제적인 부만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롭고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할 수만 있을까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L형. 너무 조잡하고 상스러운 글이라고 훑을 보지 않겠지요.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 나듯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남은 시간을 금쪽같이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후학의 지도, 연구에 전념하고 어떤 일이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말은바 소임을 충실히 행하도록 노력할 각오네요. 과학기술인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제도의 보완 및 인식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밝은 미래가 되도록 힘을 모아 정진합니다. ㉮

과학 기술인의 보람

글_ 김성청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sckim@chungbuk.ac.kr

“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 나듯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남은 시간을 금쪽같이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후학의 지도, 연구에 전념하고 어떤 일이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말은바 소임을 충실히 행하도록 노력할 각오네요.

”